

# 안산시 - 시흥시 행정구역 자율통합 건의문

의안번호	1903
------	------

발의연월일 : 2009. 9.

발 의 자 : 이민근 의원외 16인

## □ 제안이유

- 2009. 8. 29 행정안전부에서 “주민의 삶의 질 개선과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치단체 자율통합 거원계획” 따라 안산·시흥시의 2개 도시가 통합하길 원하는 건의서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출하고자 함.

## □ 주요내용

- 안산시와 시흥시가 정부의 행정구역 체계에 따라 행정여건이 다르게 2개의 시 체계로 유지되어 왔으나 전국 어느 지역보다 역사·문화·지리·정서적으로 매우 밀접한 생활 문화권을 갖고 있으며 고대로부터 현재까지 한 뿌리로 이어져 온 도시임.
- 또한 안산시와 시흥시가 통합을 통해 뜻을 같이 하게 되면 반월·시화 공단의 구조 고도화 및 서해안의 생태·환경·문화 등 대형 SOC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으며, 21세기에 부응하는 행정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은 물론 경제적 시너지 효과가 부가되어 더욱 경쟁력을 갖춘 도시가 될 수 있음.
- 따라서 안산·시흥시가 통합하여 지역 특성과 정서적인 동질감을 회복함으로써 서남부권의 가장 발전적이고 경쟁력 있는 대도시로서의 면모를 확고히 하고자 하나로 통합되기를 강력히 희망하고 건의서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출하고자 함.

## 안산시 - 시흥시 행정구역 자율통합 건의문

전국 최초의 계획도시로 태동하게 된 「1등 시민 1등 도시」 안산은 고구려 시대의 장항구현, 통일신라 시대의 장구현, 고려의 안산현과 안산군의 명칭으로 불리다가 1914년 안산군, 과천군, 시흥군이 합쳐진 유서깊은 지역입니다.

그 후 1976년 10월 반월 신공업도시 건설발표가 되고 1986.1.1 법률 제3798호에 의하여 안산시로 승격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는 정부의 행정구역 체계에 따라 2개 도시로 나뉘어진 채 행정구역은 달라졌지만,

안산·시흥시는 전국의 어느 지역보다 역사·문화·지리·정서적으로 매우 밀접한 생활 문화권을 갖고 있으며, 고대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 뿌리로 이어져 온 도시입니다.

특히 우리 안산시는 전국 최초의 완전 계획도시로서 자연과 환경, 공업단지는 물론 교육·문화·예술의 제반 여건이 잘 갖추어진 도시로서 최단기간 내에 인구 74만 여명이 거주하는 대도시로 성장 발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행정구역은 21세기의 빠른 변화에 맞춰 도시의 기능과 행정의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한계점에 도달해 있으며, 세분화된 행정구역으로 인하여 지역간 갈등 및 격차가 심해지고

행정의 최고 목표인 시민들의 만족도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더 큰 도약을 위한 도시 발전에 많은 제약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과거 여러 차례 지방행정체계에 대한 개편 논의가 있었으나 그 때마다 모두 지역의 불만과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무산되거나 유명무실해진 상태로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최근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지방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필요 공감대가 형성되어 법안이 마련된 상태이며,

행정안전부에서 주민의 삶의 질 개선과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계획이 발표되어 더한층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으며,

특히 자치단체 자유의사에 따른 통합을 통하여 화합하고 상생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는 등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좋은 여건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 기반이 토착화될 수 있는 지방분권형 행정 체제 개편이 세계적인 추세임을 감안할 때 중앙정부의 보다 확고한 의지 및 실천이 필요한 시기라고 판단됩니다.

우리 안산·시흥시의 경우 경제, 사회, 문화 등 여러 방면의 여건을 돌아볼 때 자율통합이 된다면 현재에도 교류와 소통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만 반월·시화공단의 구조 고도화와 첨단산업의 리모델링을 통하여 공해 없고 경쟁력 있는 산업 단지의 면모를 갖출 수 있고,

특히 천혜의 관광지인 대부도를 연계하는 관광벨트 구축과 시화MTV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또한 수준 높은 시민들의 행정수요 욕구 충족과 비능률적인 행정 역량을 하나로 뭉쳐 지역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는 등 행정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함은 물론,

풀뿌리 자치단체로서의 기능과 위상을 높이고 재정자립도 제고와 사회 각 분야의 기능이 연계되어 더 큰 시너지 효과로 경쟁력 있는 도시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안산·시흥시는 거의 모든 지역이 역사적 동질성은 물론 접근성, 지역적 특성, 양 도시 시민들의 정서를 고려할 때 최적의 통합시로서의 위상을 재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전국의 모든 자치단체에서 가장 모범이 되며 선두주자로서의 위상이 확립되고 시민들이 하나로 통합되며 지역사회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공동체가 완성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에 안산시의회에서는 안산·시흥의 행정구역이 2개 도시의 보편적이고 타당성이 함축된 바탕위에서 하나로 통합되기를 강력히 희망하면서 74만 안산시민을 대표하여 안산·시흥시 등 2개시의 행정구역 자율통합을 건의합니다.

2009년 9월 일

안산시의회 의원 일동

## 안 산 · 시 흥 비 교

구 분	안 산 시	시 흥 시	統 合 市
설치일자	1986.1.1 (법률 제3798호)	1989.1.1 (법률 제4050호)	
면 적 (km <sup>2</sup> )	148.22	132.79	280.79
세 대 수 (세대)	272,676	153,215	425,891
인 구 수 (천명)	740	411	1,151
행정구역	1,185통 5,870반	404통 2,476반	1,589통 8,346반
행정기구	4국 26과 3직속, 10사업소	4국 27과 2직속, 5사업소	9국 23과 5직속, 15사업소
공무원수 (명)	1,717	984	2,701
기 업 체	5,491개업체	6,793개업체	12,284개업체
예산규모 (억원)	8,886	11,191	20,077